

한글자음체제 개선연구

이 정 식
(원광대학교)

Lee, Jeong-Shik (199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angul Consonant System**. *Linguistics*, Vol. 2. Since its creation by the King Sejong in the early 15th century, the Hangul, worldly known Korean alphabet, has been our proud writing system through which we Koreans express our thoughts. Recently, the world is trending toward globalization, in which English plays an important role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But the Korean consonant system lacks such English consonants as /f/, /v/, /θ/, /ð/ and /z/. This lack of foreign consonants makes us use other similar Korean consonants, which makes ourselves mis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ew) way(s) to accommodate the above foreign consonants in the Hangul system with a minimal change. It is hoped that the present suggestion serves as a stepping stone to a more elaborated Hangul system.

1. 머릿말¹

우 리 한민족의 여러 자랑거리 중의 하나는 우리 고유의 글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고유한 글은 한글로 널리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15세기 초 이조 세종 대왕께서 훈민정음으로 창제하신 글이다.²

최근 정치, 경제, 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양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교류가 가속화 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바야흐로 세계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영어가 국제적 통용어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영어를 우리

글인 한글 (이하, 우리 국어)로 표기, 발음하려고 할때, 우리는 몇 가지 자음들을, 대표적인 예를 들면, /f/, /v/, /θ/, /ð/, /z/등, 표기, 발음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물론 영어를 배워온 우리가 위의 자음들을 발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위의 자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 단어들을 발음할때, 위의 자음들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우리 자음들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리 말의 문맥속에서는 심리적인 거부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다.

따라서 영어에서 의미와 발음이 다른 단어들이 우리 국어에서는 별 수 없이 동일하게 표기, 발음되어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으며, 또한 외국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할 소지도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또한 동음이의어 현상의 경우로 보고, 문맥속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 영어의 think/thank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sink/sank인 썩크/썩크로 말하고 듣게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think/thank와 sink/sank는 영어를 말하는 본토박이들에게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썩크/썩크가 think/thank로도 받아 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한글 체계가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위의 외래 음소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반 입술 소리 (순치음): /f/, /v/

우리 국어의 입술 소리 [ㅍ, ㅂ, ㅃ]등은 모두 두 입술 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 국어에는 영어의 [f]와 같은 반 입술 소리가 없으므로, /f/를 우리 국어로는 /ㅍ/로 표기, 발음하게 된다.^{3 4}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소리가 다른 영어 단어들이 우리 국어로는 동음이의어로 표기, 발음될 것이다.

- | | |
|-----------------|------|
| (1) pine / fine | [파인] |
| pond / fond | [판드] |
| pie / phi | [파이] |
| pull / full | [풀] |
| pun / fun | [펀] |

(1)의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 위 처럼 하나로 표기, 발음된다면, 실제로는 왼쪽 줄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에 해당하므로, 만약 오른쪽 줄에 있는 단어들을 의도하고 위처럼 표기, 발음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어의 /ㅍ/이 위 아래 두 입술을 사용하여 내는 영어의 /p/에 해당하는 소리라 한다면, 아래 입술을 가지고 내는 소리인 /f/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ㅍ/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와는 다른 글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훈민 정음 해례’에 밝혀진 바와 같이, 한글이 조음자와 조음 장소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그 꼴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꼴에 있어서 /ㅍ/의 아래쪽에 어떤 변화가 있는 글자를 고안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2)와 같은 표기를 제안한다.

(2) / Π / [f]

최 현배님은⁵ 일찌기 외래 음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종 대 왕께서 한글을 창제 하실 적에는 있었으나 차차 없어지고 말았던 몇가지 글자들을 도로 살려 쓰자는 제안을 하셨다. 그 중에는 /빙/, /풍/, /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그 분은 영어의 /f/에 해당하는 글자로 /풍/를 쓰실것을 제안 하신 것이다. 다음 (3)은 그 분이 든 예이다.

(3) fassism [풍시슴]

여기서 필자는 최 현배님의 이러한 선구적인 제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한글에서 입술 소리 아래에 ㅀ이 붙은 소위 ‘입술 가벼운 소리’는 ‘훈민 정음 해례’에 의하면, “입술을 잠깐 합쳤다 가 목소리가 많다”라 표현 되어 있다 한다.⁶ 따라서 영어의 /f/가 반 입술 소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입술 소리인 /풍/는 /f/의 표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듯 하다. 더욱 위에서 “... 목 소리가 많다”라는 것이 입술 소리가 유성화(voiced)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⁷ 원래의 훈민 정음의 의도에 따라, /풍/는 무성 자음인 /f/의 적합한 표기가 될 수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최 현배님의 제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104 이정식

방법을 모색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기왕에 현대 국어에서 /풍/소리가 사라져 없어 졌으므로, 이 글자를 영어의 /f/에 해당하는 반 입술 소리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최 현배님의 위의 제안을 다른 방법으로 살려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제로 /풍/을 다른 모음들과 같이 써서 단어를 표기해 보면 그 모양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단지 /요/처럼 써서 /f/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제안 (2)와 위의 대안들과의 선택은 차치 하기로 하고, 또하나 영어의 반 입술 소리라고 할 수 있는 /v/를 우리 국어로는 /ㅂ/으로 표기,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소리가 다른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는 동음이의어로 표기, 발음될 것이다.

(4) bow / vow	[바우]
box / vox	[박스]
base / vase	[베이스]
bale / veil	[베일]
bolt / volt	[보울트]

(1)에서와 마찬가지로, (4)의 영어 단어들이 우리 국어로 위 처럼 하나로 표기, 발음된다면, 실제로는 왼쪽 줄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에 해당하므로, 만약 오른쪽 줄에 있는 단어들을 의도하고 위처럼 표기, 발음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 국어의 /ㅂ/이 위 아래 두입술을 사용하여 내는 영어의 /b/에 해당하는 소리라 한다면, /v/는 아래 입술을 가지고 내는 소리이므로, 위의 /f/를 표기하는 경우에서 처럼 그 꼴을 염두에 두어, 그 모양에 있어서 /ㅂ/의 아래쪽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것 같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5)와 같은 표기를 제안한다.

(5) / ㅂ/	[v]
----------	-----

(5)에 제안, 표기된 음소는 소리에 있어서 영어의 v와 모습에 있어서 우리 국어의 ㅂ과의 유사성이 함께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데

흥미가 있다.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 현배님은 또한 영어의 /v/에 해당하는 글자로 /빙/을 쓸것을 제안 하셨다. 다음 (6)은 그 분이 든 예이다.

(6) violin [빙올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자는 최 현배님의 이러한 제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다시 한번, 한글에서 입술 소리 아래에 o이 붙은 소위 ‘입술 가벼운 소리’는 ‘훈민 정음 해례’에 의하면, “입술을 잠깐 합쳤다가 ...”라 표현 되어 있으며 영어의 /v/가 반 입술 소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입술 소리인 /빙/은 /v/의 표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듯 하다. 또한 실제로 /빙/은 [β]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⁹ /v/에 해당하는 소리로는 적합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최 현배님의 제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기왕에 현대 국어에서 /빙/ 소리가 사라져 없어 졌으므로, 이 글자를 영어의 /v/에 해당하는 반 입술 소리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현배님의 위의 제안을 다른 방법으로 살려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제로 /빙/을 다른 모음들과 같이 써서 단어를 표기해 보면 그 모양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단지 /읍/처럼 써서 /v/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3. 잇소리: /θ/, /ð/, /z/

우리 국어의 잇 소리 [ㅅ, ㅆ, ㅈ, ㅊ]등은 혀(끝)을 윗니 뒷부분에 접근 시켜 나오는 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 국어에는 혀가 위 아랫니의 사이에 작용하여 나오는 영어의 /θ/, /ð/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없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은 의미와 소리가 다른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는 동음이의어로 표기, 발음될 것이다.

(7) sank / thank	[썩크]
sin / thin	[썩]
sink / think	[썩크]

106 이정식

sing / thing [생]

saw / thaw [쏘]

(7)의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 위 처럼 하나로 표기, 발음된다면, 실제로는 왼쪽 줄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에 해당하므로, 만약 오른쪽 줄에 있는 단어들을 의도하고 위처럼 표기, 발음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혀가 잇사이에 있는 꼴을 따서 다음의 표기를 제안한다.

(8) /ㅈ/ [θ]

다시, 의미와 소리가 다른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는 동음이의어로 표기, 발음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경우를 살펴 보겠다. 우리 국어에는 영어의 잇사이 소리라고 할 수 있는 /θ/이 없기 때문에 /θ/는 /ㄷ/으로 표기, 발음될 것이다.

(9) day / they [데이]

Dan / than [댄]

dis- / this [디스]

dough / though [도우]

doze / those [도우즈]

그러나 (9)의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 위 처럼 하나로 표기, 발음된다면, 실제로는 왼쪽 줄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에 해당하므로, 만약 오른쪽 줄에 있는 단어들을 의도하고 위처럼 표기, 발음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음의 표기를 제안한다.

(10) / ㅈ / [θ]

잇 사이 소리의 보다 더 적합한 꼴로 / ㅈ /이 쓰일 수도 있겠으나 /ㅈ/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 되어 (10)처럼 제안한 것이다.¹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국어에는 잇 소리 중의 하나인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소리가 다른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는 동음이의어로 표기, 발음될 것이다.

(11) jag	/ zag	[재그]
jest	/ zest	[제스트]
jink	/ zinc	[징크]
Joan	/ zone	[조운]
juice	/ Zeus	[쥬스]

(11)의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 위 처럼 하나로 표기, 발음된다면, 실제로는 왼쪽 줄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에 근접하므로, 만약 오른쪽 줄에 있는 단어들을 의도하고 위처럼 표기, 발음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최 현배님은 이미 영어의 /z/에 해당하는 글자로, 원래 세종 대왕께서 창제하셨지만 오래 전에 사라져 없어진, 반 잇소리 /Δ/를 다시 살려 쓰자고 제안 하셨다.¹¹ 다음 (12)는 그 분이 든 예이다.

(12) Zaisan Lake [Δ 이산 호수]

허 옹님도¹² /Δ/은 /ㅅ/에 가장 가까운 소리로서, 그 쓰인 예는 거의 다 울림소리 사이에서만 쓰였을뿐 아니라 향음(sonorant)인 /ㄴ, ㄹ, ㅁ/등과 한가지로 분류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Δ/은 [z]소리가 나는 울림소리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최 현배님의 대안처럼 ‘Δ’로 표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나 ‘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표기를 제안한다.

(13) /Δ/ [z]

위의 표기는 /Δ/위에 한 획을 그은 것인데 /ㅅ/, /ㅆ/과 음이 비슷하면서도 그 꼴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 되었다.¹³

4. 그 밖의 다른 소리: /r/

우리 국어에서는 헛 소리 /ㄹ/이 어두에 오면 영어의 /l/에 해당하는 음의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소리가 다른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는 동음이의어로 표기, 발음 될 것이다.

(14) lock / rock	[락]
light / right	[라이트]
lime / rime	[라임]
lane / rain	[레인]
late / rate	[레이트]

(14)의 영어 단어 짝들이 우리 국어로 위 처럼 하나로 표기, 발음 된다면, 실제로는 왼쪽 줄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에 해당하므로, 만약 오른쪽 줄에 있는 단어들을 의도하고 위처럼 표기, 발음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역시 최 현배님은¹⁴ 이에 대해서도, /l/음을 /ㄹㄹ/로, /r/음을 /ㄹ/로 가려 쓰자는 선구적 제안을 하셨다. 다음 (15)는 그 분이 든 예이다.

(15) London [ㄹㄹ 런던]

또한 최 현배님은 /ㄹㄹ/이 외래 음소인 /l/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우리 배달말을 적는데도 필요하다 하셨다.

(16) 내가 널로 해서 옥을 보았다 --> 너^ㄹ
당신도 갈라오? --> 가^ㄹ오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로로 쓸때 ‘ㄹㄹ’은 필연적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 현배님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예에도 잘 적용 될지는 의문이다.

(17) 발로 차다 --> 바^ㄹ차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에서 /l/을 /ㄹ/로 표기 할때의 낫설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18) 갈 사람 --> **갈** 사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기존의 쓰기 체제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여, /l/은 그대로 /ㄹ/로 쓰고, 외래음인 /r/만을 따로, 특히 어두에 올 경우에, 다음 (19)과 같이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19) / ㄹ / [r]

여기에는 앞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입술 가벼운 소리’에서 0가 기본적으로 소리를 가볍게 하는 작용을 원용한 것이다. (16)의 어두 이외의 /l/은 다음 (20)처럼 종전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20) 내가 널로 해서 육을 보았다
당신도 갈라오?

또한 어두 이외에서 /ㄹ/이 /r/에 해당하는 소리로 나게 되는 다음 (21)과 같은 경우에도, /ㄹ/이 /l/에 해당하는 소리로 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 ㄹ/을 쓰지 않고도 /ㄹ/을 그대로 유지하여 쓸 수도 있을 것이다.

(21) 보리, 브라이트

5. 맺음말

우리는 그동안 우리 현대 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왜래 음소들을 오랫동안 접해왔으면서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 왔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존의 한글 자음 표기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의 변화를 주어, 이들을 표기하는 몇가지 제안을 했다. 여기서의 제안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제안일 뿐이다. 그러나 본 제안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더욱 발전된 한글 체계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내용주

1. 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틀린 곳을 지적하여 주고 또 많은 도움말을 준 김 형수, 이 보림, 이 숙향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발견 되는 잘못된 곳들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2.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에 대해서는 해례가 붙은 '원본 훈민 정음' (1446) 이 있다. 또한 훈민정음의 여러가지 기원설에 대하여 허 용 (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 문화사), 296쪽 이하 참고. 그중 흥미를 끄는 것은 우리 배달 거래에게는 옛적부터 글자가 있었는데 훈민정음은 이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이에 대해 최 현배 (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604쪽 이하, 김 윤경 (제 4판, 1954): 한국 문자 급 어학사, 207쪽 이하 참고. 또한 강 수원 옮김 (1985): 환단고기 (은누리 국학 총서 1, 43쪽)중 이 암 (1363)이 쓴 <단군 세기>에 보면, B.C. 2181년 제3세 단군 가락은 삼랑 울보특에게 가림토라는 정음 38자를 찬케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글자들이 한글의 자모와 흡사한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3. 경우에 따라서는 /f/를 /ㅎ/로 표기,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짝들을 표기, 발음하는데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 (i) follow / hollow, foam / home, fold / hold
4. 여기서 []는 소리를, / /는 글자 (또는 음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5. 최 현배 (1929: 제 15판, 1989): 우리 말본 (정음사), 71쪽.
6. 허 용 (1983): 국어학: 우리 말의 오늘. 어제 (샘 문화사), 307쪽.
7. 허 용 (1983): 국어학: 우리 말의 오늘. 어제 (샘 문화사), 307쪽.
8.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f/와 /v/는 유무성의 차이뿐 조음 장소나 방법이 동일한데, 이에 대한 표기인 / ㅍ /와 / ㅂ /이 그 끝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지적은 또한 / ㅌ /과 / ㅃ /이 그 끝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9. 허 용 (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 문화사), 307쪽.
10. 여기서 역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θ/와 /ð/는 유무성의 차이뿐 조음 장소나 방법이 동일한데, 이에 대한 표기인 / ㅈ /와 / ㅊ /이 그 끝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또한 / ㅉ /과 / ㅊ /이 그 끝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11. 최 현배 (1929: 제 15판, 1989): 우리 말본 (정음 문화사), 71쪽.
12. 허 용 (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 문화사), 338쪽.
13. 이 글자는 또한 상계서 '환단 고기' 43쪽에 소개되어있는 가림토문자 중의 하나이다. 이 글자의 정확한 음가는 알 길이 없으나, 필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글자인 듯 하다.
14. 최 현배 (1929: 제 15판, 1989): 우리 말본 (정음 문화사), 71, 83-85쪽.

참고 문헌

- 김 윤경 (제 4판, 1954): 한국 문자 급 어학사
이 암 (1363): 단군 세기 (강 수원 옮김 (1985): 환단고기, 은누리 국학 총서 1, 은누리)
최 현배 (1929: 제 15판, 1989): 우리 말본, 정음 문화사
최 현배 (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허 응 (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이 정 식

전북 이리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시청각 교육관